

특 집 |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

## 내가 꿈꾸는 도서관



박현우\*

사람들은 크고 작은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 우리들이 살고 또 살아야 하는 현실이 이상과 많이 다르고 부족하기에 우리는 늘 꿈을 꾸며,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 이룩한 모든 지적 결과물인 책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인류의 기억중추 기관! 이러한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 받고 훈련된 나의 동료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 무척 궁금해 하면서 내가 꿈꾸는 도서관의 모습을 그려본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발전하듯이 도서관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바뀐에 따라 책에서 정보를 찾던 시대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디지털로 정보를 찾는 시대가 되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은 아날로그 세상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디지로그(digilog) 세상으로 바뀌어 복합 또는 융합의 시대, 하이브리드(hybrid)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세상이 디지로그 시대, 하이브리드 시대로 변했다 하더라도 도서관 건물이 디지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디지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서관 안에 들어서면 벽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터미널

\*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자료교환실 사서, hwp@snu.ac.kr

이 먼저 손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도서관을 보고 싶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가 보아도, 국회도서관에 들어가 보아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 보아도 차디찬 벽이, 컴퓨터 터미널이 자료, 정보라는 희망을 찾아 온 사람들을 먼저 맞는다. 디지털이 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외국의 많은 멋진 도서관들처럼 책이 먼저 사람을 반기는 정겨움이 있는 도서관, 건물 자체가 아름다운 도서관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나고 싶다. 디지털 시대에 이집트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처럼 건물도 아름답고 책이 먼저 보이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된 도서관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고 싶다. 이제 싹트기 시작한 기적의 도서관들처럼 우리나라 도서관 건축 설계에도 정신과 문화적 요소가 담긴 도서관 건축물의 변화를 보고 싶다.

도서관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모으고 체계화시켜 이용시키는 곳이다. 따라서 사서는 개별 주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자가 대학에서 개별 전공한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이용자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일성 대학의 인문어학부도서관에 근무하는 “3급사서는 2개 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2급사서는 3개 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1급 사서는 3개 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교수에게 레퍼런스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수준의 사서들이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꾸어 본다.

문헌정보학과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도서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서관에 관심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도서관협회에 회비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서관협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서나 일반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도서관에 근무하는 5,000여명의 모든 사서들이 도서관협회에 모두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기금을 바탕으로 도서관협회를 발전시키고, 사서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사서들은 일반인보다 책을 더 저렴하게 구입하여 일반인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직업과 관련된 단체에 회비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자기 직업에 대한 내적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가?

추운 겨울 끝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개나리, 진달래를 앞세워 우리 동네 뒷동산에 찾아오면 농부들은 쟁기를 손질하고 밭에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기 시



작한다. 수확을 기대하며 밭을 갈고, 거름 주고, 씨 뿌리는 농부들처럼 우리나라의 밝은 도서관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사서들이 더 많기를 바란다.

“도서관협회가 이제껏 우리 사서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따지지 말고 지금은 묵묵히 회비를 내어 기금 모으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회비를 내는 사서가 많아 졌으면 참 좋겠다.

건물이 아름답고, 도서관에 들어서면 벽이나 컴퓨터 보다 책이 먼저 반기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조화되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좀 더 편리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안에서 디지로그 시대에 지식 전문가로서 대우받는 사서들이 이용자와 만나서 봉사하는 모습을 그려 본다.

황사에 시달리면서도 개나리와 진달래가 울긋불긋 아름답게 우리의 자연을 장식하고 있다. 이 화사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나는 이런 도서관을 꿈꾸어 보았다. 이제 다른 동료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